



▲ 관내 30개 초, 중, 고교와 자매결연 및 학교발전기금 6,600만원 전달



울산지역 금융/유통의 리더 『새농촌새농협운동』의 선두주자 중앙농협협동조합

요즘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단어가 있다.
“FTA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농업인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최근 체결된 한·미 FTA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에 그 설립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노력을 오랜 세월 말없이 수행해 왔으며, 그 중 울산에 위치한 중앙농협이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 중심부(남구, 중구일원)에 위치한 중앙 농협협동조합은 1972년 조합을 설립한 이래 35년 세월동안 울산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현재 본점과 12개 지점, 1개 경제사업소 등 14개 사업장에 박인혁 조합장을 비롯한 250여 임·직원이 근무하는 중견 금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III 우리농산물 유통의 일번지..

농협에서 유통사업은 적자사업이라 모두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앙농협은 ‘도·소비자 농협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통한 우리농업의 육성’이라는 사명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농산물 소비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시민들의 먹거리 공급과 우리농업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앙농협의 농업에 대한 애착은 우리 농협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 지역으로 환원.

중앙농협은 총 자산규모 7,200여억원으로 지역 농협 중 선두그룹에 속하는 초대형조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규모에 안정적 경영으로 수익을 극대화 해왔으며,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조합 경영목표 아래 '85년부터 조합원 자녀 장학금 283,540천원, '04년도 부터 관내 초·중·고교생 장학금 151,500천원 등 장학사업에만 435,040천원을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관내 30개 학교와 상생협력의 합동 자매결연을 체결함과 동시에 66,000천원의 학교 발전기금도 내놓아 지역 교육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지역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없어서는 안 될 농협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III 조합원 복지증진 사업에도 열심인 조합



중앙농협은 '05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인연을 맺어 전조합원에 대한 CT촬영, 위장조영술, 대장조영술 등의 첨단의료장비를 통한 검진과 각종 암검사 및 질병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사업에 91,000천원을 전액 지원하여 농업인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조합원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 무상지원도 매년 확대하여 '07년 614,302천원의 각종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

할 계획이어서 농업인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관내 농업인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III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의 리더

협동조합 구성의 주체인 조합원에 대한 무한봉사를 넘어 중앙농협은 사회 노령화에 따른 지역의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관할구역 17개 경로당에서는 '중앙농협 하나로 봉사단'의 손길이 바빠진다. 그 이유는 무료급식봉사를 위해 중앙농협 주부대학 출신의 봉사단원들이 점심식사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우리농산물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시름과 역경이 모두 사라진 듯 편안함마저 느낀다.

중앙농협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07년부터 65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장수대학과정을 신설하여 '노년기 건강한 삶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학계, 의료계, 언론계 등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양로원과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급식봉사, 목욕봉사 등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소문이 나 있다.

III '07년 종합업적평가 도시형 전국1위 달성

중앙농협이 이러한 조합원 실익증진사업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무리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전국 지역농협(1,201개)을 대상으로 평가한 종합업적평가에서 '04년 전국 2위, '06년 전국 2위, '07년 상반기 전국 1위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최고의 농협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해 왔다. 박인혁 조합장은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와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농업과 농촌,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6